

# 역사적 현실과 문화적 기억\*

: 기록 문학과 구술 문학에 나타난 포트리 대체의 형상

서 선 정  
(경북대학교)

## 1. 문제제기

민족과 국가의 과거를 역사적 기록, 그것도 가장 객관적 역사 기록으로 여겨지는 정사(正史)를 통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정사를 통해 습득한 역사만으로 우리는 그 민족이 경험한, 진정한 삶의 흔적으로서의 역사적 과거를 모두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래 ‘올바른 역사’라는 의미를 갖는 정사는 사전적으로는 ‘정확한 사실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전통적인 체계에 따라 서술된 역사기록’을 뜻한다.<sup>1)</sup> 그러나 역사적 기록은 언제나 국가와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특히 전근대기에는 국가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과거의 기록이 희귀한 만큼, 잘 보존되어 전해지는 국가에 의한 역사 기록은 쉽게 전통으로 자리잡았고, 국가적 이데올

---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53-A00161]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사’ 항목 참조: “1. 정확한 사실의 역사. 또는 그런 기록. 2. 기전체로 서술한 역사. 또는 그 기록. 3. 정통적인 역사 체계에 의하여 서술된 역사나 그 기록을 야사(野史)나 패사(稗史)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로기에 의해 편집되었을 지도 모르는 그 역사는 객관적인 진실로서 공인되었을 것이다.

이때 문제는 기록된 역사가 전해주는 사실들의 진실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실들의 기록이 온전한 전체로서의 역사가에 대한 것이다. 국가와 민족이 살아온 발자취로서의 역사는 국가와 권력의 정책을 통해 일어난 변화의 과정 및 총합으로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역사적 흐름을 인내하고 지탱하며, 때로는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던 개인의 체험으로서의 삶의 흐름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기록된 역사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실제 역사적 흐름의 매 순간을 살아내었던 개개인의 사고와 삶의 흔적을 어떻게 현재로 불러낼 수 있을까?

역사서술은 인류가 과거를 기억하는 가장 정립된 방법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기억, ‘문화적 기억’ 속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sup>2)</sup> 문화는 집단에 의해 이미 경험된 기억, 과거의 역사적 경험의 기록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이 파괴되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가 특정한 순간이 되면 다시 재구성되어 해당 시기에 현재로서 다시 읽혀진다.<sup>3)</sup> 역사적 기록이 아닌 문화적 기억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집단적 체험이 나름의 체계를 갖추어 집적, 응축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가 직접적인 과거 현실의 재현이 아닌 그것의 체계적인 응축물인 만큼, 그것을 통해 과거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문화를 하나의 잘 짜여진 텍스트로 바라보고 그것을 읽어내어야 한다. 이렇듯 이 논문에서는 당대의 역사적 현실을 또다른 차원에서 읽게 해줄 질료로서 문학 텍스트에 주목한다.

한편, 문화를 기억의 저장고로 읽는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문화 속에 자신들의 체험과 사고를 응축시킨 집단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역사를 작동시키는 두 힘으로서 역사의 변화를 외면에서 주도적으로 이끄는 국가 권력과 그로 인한 역사적 현실을 수용하고 인내하며 견뎌야했던 민중들을 설정한다.

2) Ю. М. Лотман и Б. А. Успенский “О семиотическом механизме культуры,” *Семиосфера*, СПб, 2001, сс. 614-621.

3) 문화적 기억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Ю. М. Лотман “Память культуры,” *Семиосфера*, СПб, 2001.

역사적으로 모든 절대 왕권의 성립과 발전기에는 대대적인 문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지배계층에 의한 문화 통제가 동반되었고, 일반적으로 공식 문화는 국가적 문화 기획의 결과였다. 반면 일반 대중들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생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사고와 세계 인식을 소박하고 담아 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화적 기억의 대상으로서의 문학 텍스트를 각각 공식 문화와 민중 문화의 반영체로서의 기록문학과 구술문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절대왕권기의 국가와 국가적 사건은 군주의 이념에 의해 기획되는 만큼, 각각의 문학 속에서 지배자의 형상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의미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가적 문화 기획에 의해 검열되고 선도되어온 절대 권력 시대의 기록 문학 속에서는 이상화된 지배자의 형상을 찾을 수 있다면, 국가적 문화 기획 바깥에 존재하면서 민중의 자가 전승을 통해 형성된 구술 문학에서는 당대 지배자에 대한 민중의 비교적 자유로운 상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듯 문자성과 구술성 속에서 서로 다르게 재현된 동일한 전제 군주의 다양한 형상에 대한 비교는 지배적 국가 관념과 민중적 인식 속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상이성과 각각의 특이성을 밝혀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문화기획이 가장 적극적으로 발현되었던 시기이자, 이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이 가장 극렬했으리라 여겨지는 시기로서 러시아역사의 시대정신이 변화를 겪던 18세기 전반기의 표트르 대제의 시기를 주목하며, 이 시대에 창작된, 혹은 표트르 대제의 역사적 업적이나 직접적으로 표트르 대제의 형상화와 연관된 텍스트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2. 신 러시아로의 재편기로서의 표트르 대제의 치세

러시아 역사상 유일하게 ‘대제(великий)’의 수식어가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잘 알 수 있듯, 러시아를 역사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한 표트르 1세의 개혁은 그만큼 가치있는 것이었다. 표트르 대제가 펼친 개혁 정책이 지닌 주된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지만, 러시아 역사철학적 관점에

서 그가 과거의 러시아를 새로운 러시아에 대립시킴으로서 러시아를 새로운 역사적 흐름 속에 위치시켰다는 점에서는 일관된다.<sup>4)</sup> 실제의 거의 모든 부분에 걸친 그의 개혁은 러시아를 새로운 정체성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시켜 세계 속에서 새로운 국가적 위상을 갖게 했고,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는 근대화된 유럽적 표준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당대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이렇듯, 역사가 기억하는 표트르 1세의 시기는 변화/개혁과 동의어였고, ‘새로움’이 전면화된 천지개벽의 시기였다.

### 1) ‘신러시아’ 이념에 내재한 권력의 전통적 속성

표트르 시대에 덧입혀진 새로운 가치는 다양한 개념들로 정의되어왔다. ‘계몽주의, 합리/이성주의, 국가/관료주의, 세속주의, 실용주의, 유럽화’ 등 그 시대에 추구되었던 다양한 지향성이 모두 그 대상이 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지향성들이 표트르 시대에 바로 현실화된 것은 아니었다. 오랜 전통처럼 그의 시대는 구시대와 신시대를 가르는 경계시기, 과도기적 시기(переходное время)로 규정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른다.<sup>5)</sup> 이 시대에 주창된 개혁이 전면적이었던 만큼, 과도기적 시기로의 규정 역시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졌다. 18세기 동시대인들 사이에서도 당대에 대한 그러한 시각은 존재해왔으나,<sup>6)</sup> 이 시기의 개혁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과도기적 현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솔로비요프(Соловьёв С. М.)로부터였다. 솔로비요프는 표트르 시대를 역사적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이 시대의 변화를 ‘전통적인 옛 것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접목시킨 결과’로 이해했다.<sup>7)</sup> 전통적인 체

4) Ю. В. Стенник *Идея «древней» и «новой» России в литературе и обществ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й мысли 18-начала 19века*, СПб., 2004, с. 13.

5) Л. А. Черная *Русская культура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 от средневековья к новому времени*, М., 1999, сс. 13-30.

6) 같은 책. 시체르바토프(Щербатов М. М.)는 군주와 신하간의 관계를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아버지-아들 간의 관계로 여기던 단순하고도 이상적인 전통 관념이 깨어져 혼란이 야기된 시기로 규정했고, 카람진(Карамзин Н. М.)은 새로운 습속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시민의 도덕성을 와해시킨 시기로 부정적으로 규정했다.

7) 같은 책, с. 15. 그의 제자인 클류첸스키에 의해 이러한 관점은 더욱 더 심화되었

계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것의 가치 추구, 즉 두 가치의 동시적인 추구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솔로비요프의 지적은 매우 의미가 있다.

쉽게 간과하고 있는 바, 표트르 1세의 시대는 통치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마지막 시대이다. 이는 그의 시대가 갖고 있는 속성이 구시대적인 정서, 즉 군주의 절대적 권력이 시대를 규정하는 전권적인 양상을 띄는 마지막 군주라는 뜻으로서, 그의 시대가 종교적 가치를 토대로 하여 왕권이 곧 신이 내린 권력으로 인식되던 마지막 시대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표트르 대제가 실상 자신의 권력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휘두른 폭압성과 위압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자신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움’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전통적 가치’를 이용해왔다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관찰된다.

이는 표트르 1세의 시기를 앞선 흔히 ‘동란기(смутное время)’로 명명되는 혼돈의 시기의 본질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류릭 왕조의 정통 통치가문의 사멸로부터 새로운 로마노프 왕조의 성립시기까지의 시기(1598년-1613년)를 지칭하는 동란기의 시기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 그 핵심은 바로 왕위 계승권의 혼란이었다. 보리스 고두노프로부터 출발한 연이은 귀족들의 차르 등극, 그리고리 오투레피예프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참칭자들과 차르 자리를 노리고 일어난 구귀족들의 시도와 반란들 속에서 러시아인들은 더 이상 신성한 왕권이 아닌,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와 버린’ 왕권을 목도하였으며, 그것을 장악하기 위해 외세의 간섭도 마다하지 않는 세속적 권력으로서의 왕권의 속성을 인지하게 된다. 중세 러시아의 세속적 신분 피라미드의 정점인 절대적 왕권에 대한 회의는 구러시아 세계의 질서를 가능케 했던 권위들에 대한 회의에 다름 아니었고, 따라서 사회적 질서, 신분 체제, 왕권, 종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환멸의 지점으로부터 결국 이후 신시대 이념의 근본이 되는 개인성에 대한 인식이 출현하게 된다. 특히 일련의 동란기의 혼란들이 결국 국민군에 의해 진압되고, 새로운 왕권이 농민대표

---

다. 클류첵스키는 변화의 전조, 발단, 절정을 세분화하여 시대적 변화에의 요구가 16세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표트르 1세의 시대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가 실현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단을 포함한 민중대표들에 의한 zemski sobor(земский собор)에 의해 성립함으로써 러시아 민중들의 국민적 자의식의 성장은 더욱더 가속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로마노프 왕조의 성립 이후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농민, 평민 계층에서 일어난 집중적 소요들은 신의 섭리에 의한 현실과 신의 섭리에 의해 부여된 절대적 왕권에 수동적으로 복속해왔던 민중들의 전통적 사고방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내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신성한 권력을 비롯한 구러시아의 가치에 대한 회의, 국가 공적 권력과 국민 의식의 형성, 개성의 대두와 개인적 세속적 가치에 대한 인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의식은 표트르 대제가 표방한 새로운 러시아의 이념으로 이어졌다. 즉 표트르 대제 시기의 일련의 정책들은 그러한 시대적 혼란이 요청한 역사적 요구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8)</sup>

그러나 전통적 가치에 대한 회의라는 동란의 시대의 이념은 이를 뒤집어보면 전통적 세계가 평온하게 제시해온 권력과 도덕, 질서가 지닌 정당성에 대한 회귀에의 요구에 다름 아니므로, 이러한 요청에 대해 부응한다는 것은 전통적 체계의 틀과 새로운 가치가 공존하는 체계를 제시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표트르 1세는 자신의 시대를 기존 러시아의 시대로부터 구별짓는 신시대가 고차 여러 정책을 실현한다. ‘차르’를 버리고 ‘황제(император)’의 칭호를 받아들임으로서 자신의 시대를 초기 로마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단절된 새 시대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은 그가 추구한 시대 이념을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내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가 마련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은 러시아의 옛 역사적 경험을 환기하고 이를 재해석하여 반영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우선 그가 페테르부르크와 그 위에 세운 자신의 제국을 새로운 로마로 의미화한 것은 ‘모스크바-제3로마설’과 ‘흰 두건 이야기’를 배경으로 정립한 이념화의 결과로서 고대 러시아의 전통적 이데올로기를 새로운 역사적 맥락으로 부활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모스크바 러시아가 국가적 신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한 ‘모스크바-제3로마설’에는 기독교적 근원으로서 초기로마가 지니는 근원성과 권력성이 함축되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고대 러시

8) 이와 같은 역사적 추이는 앞서 언급한 클류첵스키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아 세계에 문화적 근원이었던 비잔티움은 제2의 로마였으며, 모스크바는 그러한 차원에서 비잔티움을 이어받는 신성성과 권력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표트르 대제가 모스크바도, 혹은 ‘흰두건 이야기’의 신성한 장소인 노브고러드도 아닌 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건설하여 로마, 그것도 제2로마, 제3로마도 아닌, 로마 그자체의 상징성을 부여한 것은 이러한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의 체계를 투사하고 극복하여 페테르부르크를 모든 것의 출발 지점으로 의미화하는 작업이었다. 특히 로마로의 상징을 위해, 역사 속에서 이미 거론되었던 도시 모스크바를 버리고, 노브고러드와 성자 ‘알렉산드르 넵스키(Александр Невский)’의 이름으로 묶인 도시 페테르부르크를 선택한 것 역시도 이러한 이데올로기화 작업의 중요한 지점 중 하나였다.<sup>9)</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트르 1세는 자연스럽게 <모스크바-제3로마>설이 지니고 있는 권력의 비잔티움적인 신성성의 빛을 자신의 국가적 이상에 투영하는 동시에, 그러한 전통적 이론을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전통적 종교성마저도 극복하고 종속시킨 강력하고도 새로운 국가 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sup>10)</sup> 이렇듯 표트르 1세가 세운 왕국은 종교에 복속된 국가가 아니라, 종교성 위에 국가성을 전면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히 새로운 국가였으나, 그것을 지탱하는 근원이 여전히 군주제와 왕조, 신학적 요소들이 섞인 전통적인 국가 체제라는 점에서는 전통적 국가였고, 그는 전통적 차르의 얼굴을 숨긴 새 시대의 황제였던 것이다.<sup>11)</sup>

## 2) 문화적 정체기로서의 표트르 1세의 문화 변혁기

그러나 절대 권력으로 행사한 표트르 1세의 문화개혁은 당대 현실 속에서 문화적 신시대의 개화로 표출되지 않았다. 그가 새로움으로 탈바꿈시키고자

9) Ю. М. Лотман и Б. А. Успенский “Отзвуки концепции «Москва - Третий Рим» в идеологии Петра Первого(К проблеме средневековой традиции в культуре барокко),”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T.3, Tallinn, 1993, сс. 203-205.

10) 같은 책, сс. 207-208.

11) 그 전근대적 성격에 대해서는 참조: 제임스 크라크라프트 『표트르 대제』, 서울, 2008, 92-93쪽.

했던 러시아는 갑작스레 변화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면면한 역사를 지닌 옛 러시아였고, 그것은 하루 아침에 변할 수 없는 존재였다.<sup>12)</sup> 변화는 매우 서서히 일어났고, 이 시대는 당연하게도 역사가들의 평가 속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과도기로 낙인찍혔다.

1698년-1701년 사이에 표트르 대제가 문화영역에 대해 일련의 칙령들을 발효한 것은 러시아 문화의 이전 시대를 종결짓고 그 문화 흐름을 국가가 주도하는 단계로 발전시킨 순간으로 평가된다.<sup>13)</sup> 즉, 문화와 관련하여 내려진 이러한 칙령들은 이후로 과도기적 시대의 문화적 발전이 적극적인 국가 권력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서막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세로부터 관성적으로 지속되어온 옛 문화가치와 국가권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강요된 새로운 문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충돌하게 되었고, 특히 옛 가치에 익숙한 당대 러시아인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실행령들은 끊임없는 오해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시기는 문화적으로 의미있는 그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한 채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문학의 영역에서도 반복된 이러한 당시의 정황은 때로 표트르 대제의 시대를 문학적 진공상태<sup>14)</sup>, 혹은 문학사의 흐름에서 쉽표, 정류장<sup>15)</sup>과 같은 시대로 평가하게 했다. 여전히 잔재하고 있던 중세적 문학관 위로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적인 문학 모델을 찾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외국 문학 텍스트들의 번역과 유입은 당시 러시아 문학적 상황을 다종적 근원의 수많은 문학 텍스트

12) 러시아 문학사에서 이와 같은 생각은 좀 더 분명히 서술된다. 참조: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4-х томах*. Т.1. М.;Л., с. 408.

13) 일단의 연구가들에 의해서 이행기 과정의 시작으로도 평가되는 표트르 대제의 개혁은 그것이 상위 권력의 전면적인 개입이나 국가적인 통제가 없는 자유로운 움직임의 종결의 의미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과도기의 끝을 의미한다고도 여겨진다 (Л. А. Черная *Русская культура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 от средневековья к новому времени*, М., 1999, сс. 67-68).

14) С. И. Николаев *Литературная культура петровской эпохи*, СПб., 1996, с. 4.

15) Д. С. Лихачев *Поэтика древне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Т. 1. Л., 1987, с. 276;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4-х томах*. Т.1. М.;Л., с. 420.

들이 이해되지 않은 채 내던져진 카오스적인 상태로 변모시켰다.<sup>16)</sup>

일상 생활 영역에서도 변혁과 오해는 반복되었다. 표트르 1세 이후 러시아 귀족들은 구시대적 삶의 방식이 부정되고 새로운 삶의 원칙들이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바람에, 그 이전까지 자연스럽게 영위하던 일상적 삶을 학습을 통해 획득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sup>17)</sup> 유럽적 표준에 맞춘 신러시아적 예법의 창조를 위해 번역된 예법서들은 당대 러시아인들에게는 텍스트의 구절대로 행동할 것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으로 오해되었다. 그리하여 당대 러시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갈 것을 요청받았고, 나아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마치 타인의 삶을 ‘연극’하듯 살아야만 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8)</sup>

자연스러운 문화적 변화로부터 탈피하여 강력한 군주에 의해 강요된 변혁을 둘러싸고 발생한 술한 오해,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정체는 이후 러시아 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의 정초를 위해 필수적인 역사적 단계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음이던 개혁을 추진한 표트르 그 자신과 그러한 개혁을 살아내던 당대 러시아 민중이었다.<sup>19)</sup> 신시대가 표방하는 이념과 실행들 사이에서 표트르 1세와 민중들 간의 술한 부침과 갈등은 이 시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학 텍스트 속에 형상화되어 반영되어 왔다.

### 3. 기록 문학과 신 러시아 이념

17세기 말, 18세기 러시아에 일어난 대변화들은 문학에서도 본질적인 변화

16) С. И. Николаев *Литературная культура петровской эпохи*, СПб., 1996, сс. 11-30.

17) Ю.М. Лотман “Поэтика бытового поведения в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18 века,”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Т.1, Таллинн, 1993, с. 249.

18) 로트만은 이 논문에서 표트르 대체의 시대에 이처럼 비롯된 일상행위의 기호화로 인해 18세기와 그 이후 러시아 귀족들의 삶에 생긴 행위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19) Л. А. Черная *Русская культура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 от средневековья к новому времени*, М., 1999, с. 77.

를 가져왔다.

기록 문학에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문학이 ‘절대이성(Слово-Логос)을 언어로 물화한 결과물로서의 문학(словесность, письменность)이 아닌, 그러한 이성의 물질적 형태인 문자(활자:литера=буква)를 따라 기록한 결과물로서의 문학(литература)’에 대한 관념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sup>20)</sup> 고대 러시아의 문학이 신의 섭리에 따라 영감을 얻어 기록한 결과물로 이해되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시대의 문학은 인간이 소통과 정보의 보전을 위해 만들어낸 물질적 존재인 문자의 조합로 이해된 것, 다시 말해 인간의 주체적 창작에 의한 결과물로 이해된 것이다.

문학관에서 발생한 이러한 변화는 사실 16세기로부터 서서히 예비되어 17세기를 지나며 구체화되었고, 18세기 표트르 시대로부터 주창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는 신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인간에게 창조를 가능하게 했다. 신적 질서를 기록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학에 서서히 허구의 자리가 가능해졌고, 신시대에서는 문학은 인간 사고의 기록이 되었다.

새로운 문학에는 무한한 창작에의 가능성, 자유로운 인간 사고의 반영 가능성이 넓게 열린 듯하지만, 실상 표트르 시대의 문학적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 1) 역할로서의 문학

17세기로부터 본격화되어온 신의 섭리로부터 문학의 해방은 시대적 흐름이었고, 집단적 문학적 전통의 필사가(книжник)였던 전통적 작가가 외부의 요구에 의해 창작했던 것과는 달리 이 시대의 작가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내적 요구에 의해 창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심지어 이러한 변화는 중세 문학적 전통을 가장 오래도록 고수해온 교회문학가들 속에서도 이미 그 흔적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sup>21)</sup>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구시대 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마저도 침범할 정도로 이미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20) Л. В. Левшун *История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ого книжного слова 11-17 вв.* Минск, 2001, сс. 3-11.

21) С. И. Николаев *Литературная культура петровской эпохи*, СПб., 1996, сс. 79-80.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표트르 대제의 시기에는 중세적 가치를 대체하며 그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강력한 새로운 가치인 국가적 권력이 창작을 위한 또다른 외적 요구로 자리하고 있었다. 신시대의 모든 개혁이 표트르의 손을 거쳤고, 문학 역시 표트르 개혁의 중요한 대상이었다.

국가권력을 최상위에 두고 다른 모든 권위를 공적인 가치에 복속시키고자 했던 표트르 대제가 구시대의 가장 주요한 가치였던 종교와의 대립의 날을 세웠던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표트르 대제는 전통적 의미에서 문학이 종교적 가치의 가장 좋은 전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종교의 이론적 바탕을 선전할 수 있는 문학에의 통제를 강화했다.

1724년 수도원과 수도사를 위한 칙령에서 표트르 1세는 사제가 되기 위하여 구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작가 계층이었던 이들에 대해 검열 제도를 제도화했다. 결국 표트르 시대에 사제는 국가제도의 관료가 되었고, 작가는 국가적 칙령이나 주문에 의해 글을 쓰는 또다른 필사가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적 유형이 표트르 시대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sup>22)</sup>

문학에 대한 표트르 대제의 영향력은 어떠한 유형의 책을 읽고 쓸 것인지, 심지어는 어떠한 종류의 책을 인쇄하거나 수고본으로 남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의 개혁이 서구적인 모델을 통한 새로운 러시아의 창조를 지향하고 있었던 만큼, 표트르 1세가 문학 개혁을 위해 실행한 주된 업적은 문학의 개혁을 위해 서구전통의 문학 텍스트를 번역해 소개하는 것이었다.<sup>23)</sup> 그러나 이 시대의 관심이 실용성에 있었던 만큼, 번역도서의 목록은 실제적 효용가치를 지니는 것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의학, 수학, 군사학, 농업 기술 등 과학기술과 연관된 학술서적, 국가조직론, 정치이론, 정치가를 위한 지침서 등이 그러했다. 순수한 허구적 창작으로서의 문학은 그에게는 중요치 않은 것이었다. 우화나 노벨라 류들은 비학술적 서적으로서 거짓, 허구와 동

22) А. М. Панченко “О смене писательского типа в Петровскую эпоху,” *Проблемы литера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и первой трети 18в.*(18в. Сб.9) Л., 1974, сс. 123-125.

23) 18세기 러시아 문학의 생성을 위한 번역 문학에의 역할에 대해서는 С. И. Николаев *Литературная культура петровской эпохи*, СПб., 1996, сс.11-50 참조.

의어로 인식되는 바람에 심지어 번역문학의 목록에서도 제외되었다. 비록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시대적 이념이 된 시대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한달음에 인간의 허구와 상상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틈새에서도 인간의 개성에 대한 신뢰는 다른 측면에서 그 싹을 서서히 틈워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문학의 유희와 재미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시대의 문학적 유희는 폴란드로부터 번역되어 들어온 『파체치야(Фащция)』와 같은 외래 번역 서적을 통해 수용되었다. 물론 유희를 문학 창작의 주요한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포트르 1세가 일상생활 문화의 일환으로서 유럽적 표준에 준하는 놀이 문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학 텍스트를 그 과정에 편입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24)</sup> 심지어 이러한 일련의 놀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활동의 귀결이 아니라, 유럽적 일상생활을 따른 ‘원칙에 따라 습득하여야 하는 올바른 놀이문화’였으며, 국가가 규정한 원칙에 의거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행해야만 하는 유희였다.<sup>25)</sup> 그것은 본격적인 의미에서는 문학적 유희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그러한 방식으로나마 신시대 문학적 개혁의 흐름 속에 편입되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포트르 시대의 새로운 문학은 국가적 원칙과 기능에의 복무를 기준으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세속화와 인간 사고에의 긍정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관념을 포섭하고 있기는 하나, 그 존재 형태는 중세 러시아 문학의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중세 러시아 문학의 텍스트와 장르가 그것의 실용적 역할에 의해 규정되고 구성되어진 것<sup>26)</sup>과 같이 이 시대의 문학 텍스트 역시 국가적 이데올로기와 개혁적 원칙과 실용적 기준에 의해 창작되고 유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시대 개혁의 이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전통에의 재해석을 통한 적용이 신시대 문학을 위한 문학적 전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새로운 가치를

24) 같은 책, c. 46.

25) A. M. Панченко *Русская культура в канун петровских реформ*. М., 1984, сс. 112-137.

26) Д. С. Лихачев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0-17вв.*, сс. 73-90.

내세우지만, 그것이 구성되고 존재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체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창작된 고유 문학 장르들 -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평 텍스트들과 고대 러시아 문학적인 설교 장르, 차르를 비롯한 권위자와 행적, 국가적 사건 등을 칭송하는 송가(ода; похвальное слово) -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기준은 중세러시아 문학에 대한 해석의 틀을 참조하여 마련할 수 있다. 이 시대의 문학적 텍스트는 그것의 기능,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능과 역할에 의해 마련된 것인 만큼, 그 속에 투영된 국가 이데올로기의 모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표트르의 시대는 그 어떤 관념어가 아닌 군주 표트르의 지향성 속에서 규정되는 만큼 이러한 문학 텍스트 속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표방한 통치 이데올로기의 실체가 표트르 대제의 형상을 통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 2) 기록 문학 속의 표트르 대제 형상

18세기 기록 문학에서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서구 열강의 반열에 올려놓고 새로운 역사로서의 길을 연 뛰어난 군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작자 미상의 기록으로부터 로모노소프와 같은 고전주의 대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가들에 의해 형상화된 표트르 대제의 문학적 초상은 서로 보완적 관계를 이루며 역사적 인물로서의 표트르 대제에 대한 입체적인 형상화를 이루어낸다. 특히 그는 개혁을 이루어낸 합리적이고도 혁신적인 군주로 의미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작가인 페오판 프로코포비치(Феофан Прокопович)는 17세기 말엽 태어나 수도원으로 입문한 종교작가로서, 신 문학적 정체성을 가진 작가라기보다는 고대 러시아 문학적 창작에 더욱 가까운 작가로 이해할 수 있다. 교회설교문학에서 보이는 수사학에 바탕을 둔 문체와 정치와 현실의 문제들을 신의 섭리로 간주하려는 문화적 지향성 속에 머물러 있었던 탓에 군주 표트르 대제의 정치적 역사적 업적을 신적인 질서의 결과 및 종교적 선악의 구도로 이상화하는 맥락이 그러하다. 일찍부터 군주의 개혁적신을 받아들인 페오판 프로코포비치는 뛰어난 웅변가로서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표트르 대제를 위한 찬가에 아낌없이 바쳤다.<sup>27)</sup>

표트르 대제의 생전에 창작된 페오판 프로코포비치의 작품 중에서 가장 회자되는 작품의 하나로 “스웨덴 군대에 대한 승리에 바치는 찬가(Слово похвальное о преславной над войсками свейскими победе)”는 1709년 스웨덴 군대에 대해 승리가 지니는 정치/사회적, 역사적 의의에 대한 평가를 담은 것으로서, 국가적 사건에 대한 당대의 의미화를 잘 드러내어주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sup>28)</sup> 내용의 주를 이루는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진정한 찬탄, 전쟁장면에 대한 생생한 묘사들 속에는 사건의 의의를 드높이기 위한 의미화 작용들이 교차하고 있다. 스웨덴 군대와 카를 12세, 러시아 군대와 표트르 1세가 이루는 대립은 악과 선, 소란과 평화의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골리앗과 다윗, 뱀 또는 사자와 삼손 또는 헤라클레스, 나아가 이교도와 정교도 등으로 서술되어 종교적인 의미를 덧입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성서적 인물의 상징은 그 자체로 러시아 군대를 대표하는 표트르 1세의 형상에 대한 유비로도 작용한다. 또한 사건의 의미는 러시아적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시공간적으로 과거 역사와의 유비, 나아가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유비를 통해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듯 확장된 승전예의 영광은 전투를 이끈 표트르 1세에로 반영되어, 용맹하고 현명할 뿐만 아니라 신의 광휘를 입은 영광된 군주로 형상화된다. 그 후 1717년 8주기를 맞아 이 사건은 페오판 프로코포비치의 “폴타바 전투에 바치는 찬가(Слово похвальное о баталии Полтавской)”로 재탄생한다.<sup>29)</sup> 여기에서는 러시아의 발전에 대해 질투하는

27) 키예프의 수도원에 거주하고 있던 페오판과 표트르 대제는 실제 표트르가 키예프를 방문하였을 때 서로 만났고, 이후 폴타바 전투 이후 표트르 대제가 또다시 키예프를 방문하였을 때, 폴타바 전투 승리에 대해 페오판이 찬가를 바친 이후 그 관계는 매우 긴밀해졌다. 그 이후 표트르 대제는 그를 페테르부르크로 불러 중무원의 권한을 부여하였고, 페오판 프로코포비치는 이후 평생토록 표트르 대제의 곁에 남아 그에게 복무하였다(Л. Бердников и Ю. Серебряный *Пантеон росси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18 века*. СПб., 2002, сс.483-488).

28) 텍스트는 *Феофан Прокопович. Сочинения*(Под ред. И.П.Еремина), М.;Л., 1961, сс. 23-38.

29) 폴타바 전투에 대한 두 찬가를 통해 페오판 프로코포비치는 당대 문학에서 전쟁문학 장르(новый жанр в ораторской прозе -батальная живопись)를

인접국으로서의 스웨덴의 질서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올린 군사체제, 무기발명, 해군함대창설 등에서의 개혁 성과들이 열거된다. (**“Возрасте в совершенный возраст сила и слава российская дивным во всем и еще первыми таковым своим монархом, богомвенчанным Петром. Увидели противницы обученное добре наше воинство; увидели всецело устроенную артиллерию; увидели поднесенные флота нечаянное флаки; услышали смутившийся Стамбул на посольство русское, новым к себе путем водным приспевшее. (...) Видели господа шведы, колико прибудет искусства от тоя дороги монарху, с природы быстроумному, того ради умыслили восприятый ему путь запяты или еще несовершенно обучившагося к войне себе угоднейше раздражити.”**)<sup>30)</sup> 아울러 일련의 개혁 성과는 표트르 1세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서술되며, 이 과정에서 그는 신에 의해 왕좌에 오른 군주로, 태생적으로 지혜로운 군주로 신성화되고 이상화된다. 개혁적 성과를 통해 표트르 대제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1720년 러시아함대가 그린검 해협에서 스웨덴 함대에게 거둔 승리를 기념한 찬가 “러시아 함대에 바치는 찬가(Слово похвальное о флоте российском)”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는 바람의 방향이 나뻐졌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었고, 이러한 사실은 신의 은총을 입은 러시아 함대로 칭송되어 표현된다. 이 찬가는 바다에 인접한 국가가 함대를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세계사 속에서 지적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함대 창설을 신의 섭리로 의미화한다.<sup>31)</sup>

---

창조했다고 평가된다.(O. M. Буранок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8 века. Петровская эпоха. Феофан Прокопович*, M., 2003. с. 195 참조)

30) 찬가 텍스트는 *Феофан Прокопович. Сочинения*(Под ред. И.П.Еремина), M.:Л., 1961, сс. 48-59, 인용 부분은 같은 책, сс.52-53 참조.

31) “Тако продолжает радости твоя, тако славы твоя умножает бог, о Россие! Прославим убо прославившаго нас, благодарим обрадовавшему нас! Его дело есть флот российский, его благославление есть толикая сила и толикая плоды флота российского. **Он смирением своим навел очи монаршии на презренный ботик; он царское сердце зажег к архитектуре корабельной;** он, предопределяя России возвращение своих и получение новых поморских стран, предварил ю благословением

그리고는 신의 은총에 의해 함대 창설에의 열망을 품게 된 표트르 대제에 대한 칭송이 뒤를 잇는다(“Благословен же и ты богом вышним, державнейший монархо российский, яко толь милостивое к достоянию твоему божие смотрение не вотще тобою действует”). 나아가 은총과 영광은 전 러시아 민중에게, 나아가 장수들과 병사들에게로 전이되다가 마지막으로 신에 대한 기도문으로 끝맺는다.

표트르 대제의 생전에 창작된 문학 텍스트에서는 주로 창작의 계기가 된 사건의 역사적 의미화에 집중하며, 그 과정에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과 표트르 1세의 역할 신의 섭리의 틀 속에서 고찰된다. 반면 그의 사후 창작된 많은 찬가들은 당연하게도 표트르 1세의 형상화에 집중하여 표트르 대제에 대한 보다 더 화려한 문학적 초상을 그려낸다.

페오판 프로코포비치가 표트르 대제의 사후 창작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표트르 대제의 장례 추도문(Слово на погребение Петра Великого)”과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성스러운 표트르 대제에 바치는 찬가(Слово на похвалу блаженных и вечностойных памяти Петра Великого)” 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은 표트르 대제와 연관된 여러 역사적 업적을 요약하여 숭앙의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표트르 대제를 성화하여 신적인 경지에까지 추앙한다. “표트르 대제의 장례 추도문”에서 표트르 대제는 위기의 순간에 약해진 힘을 드러낸 삼손, 노아의 방주에서 세계 끝까지 항해한 야벳, 악에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민족을 이끈 모세, 현명한 왕 솔로몬, 기독교적 이상을 실현한 권력을 창출한 다윗과 콘스탄티노폴로 명명되어 강인하고 정의롭고 현명한 이상적인 권력자로 형상화될 뿐 아니라, 성서 및 세계사 속의 인물들과 유비됨으로 인해 드높은 존재적 위상을 갖게 된다.<sup>32)</sup> 프로판 프로코포비치에 있어서 표트르 대제의 형상은 사회적 민족적 도덕-윤리적 이상이자, 신의 의지를 실행한 자로서 신성한 성자의 형상에까지 고양되고 있는 것이다.

своим, сильну же и действенну на мори сотворил, вооружив флотом и толикими ушедлив победами. Благословен бог наш, изволивый тако!”(Феофан Прокопович. Сочинения(Под ред. И.П.Еремина), М.:Л., 1961, с.111)

32) 같은 책, cc. 126-129.

표트르 대제에 대한 유사한 형상화 기제는 익명의 작가에 의해 창작된 희곡 『슬픈 영광(Слава печальная)』 속에 잘 드러나 있다.<sup>33)</sup> 본 극이 시작되기 전 서막(Prologus)에서 이 극이 표트르에 바쳐진 극임을 명시되어, 표트르 대제는 신앙의 초석이자 조국의 수호자, 용감한 기사이자, 노인들에게는 흔들림없는 지팡이이자, 젊은이의 현명한 스승으로 불리우며, 러시아인들은 아버지를 잃은 고아로 불린다.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행정적, 도덕 교육적 전면적 측면에서 완성된 그의 형상은 러시아인들의 오랜 믿음인 아버지-군주의 형상으로 종결된다.<sup>34)</sup> 이와 같은 서두에서의 형상화는 극의 진행과 더불어 반복되고 강조된다. 극 속에서 넵툼과 아테나 팔라스, 마르스의 도움을 받아 영광된 나라로 변모하게 된 러시아는 그들에게 감사를 올리지만, 세 신격은 오히려 표트르 대제에게 그 영광을 돌린다. 이어 표트르 대제의 서거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전 러시아가 이를 슬퍼하기 시작하는데, 애도의 행렬에 페르시아, 폴란드, 스웨덴이 나타나 애도는 전 세계적 차원으로 번지고, 표트르 대제가 실천한 덕목을 상징하는 신실함(благочестие)과 진실(истина), 용기(мужество)가 나타나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면서 극은 종결된다. 해군을 상징하는 넵툼, 정의로운 권력의 상징인 아테나 팔라스, 전쟁의 신 마르스 등의 신화적 형상을 통해 표현된 표트르 대제의 개혁은 러시아를 전 세계적 차

33) 이 작품은 표트르 대제가 사망한 1725년에 무대에 올려진 작품으로서 그 작가는 신학생 표도르 쥐롭스키(Федор Журовский)로 추정된다. 텍스트는 *Петр 1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18 в.*, СПб., 2006, сс. 66-89.

34) “Вспомяни убо, роде российский, отца своего, милостиваго защитника императора и государя, вспомяни вся его, яже к тебе показанная благодеяния, вспомяни Петра твоего и сего Перваго, и сего Великаго, воспамяни храбраго подвижника, мужественнаго ковалера. Ах, увы, нет нашего государя, преиде свет очию нашею, угасе свеща всероссийская - дражайший наш Петр, Петр Алексеевич, Петр камень веры, ей, камень быть, защитник бо и отец отечества. Оплачьте убо, россияская чада, милостиваго отца вашего, оплачьте, вои всероссийские, храбраго вашего коваера, оплачте, стари, непоколебимаго жезла старости вашей, оплачте, юнии, премудраго вашего учителя, оплачи напоследок, самое отечество, Россие, глаголю, дражайшее свое чадо воспитавшая, и видзь, кто и какову остави тя.(같은 책, с. 67)”

원으로 등극시키며, 신실함과 진실, 용기의 세 덕목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군주의 형상을 창출한다. 극의 등장인물로 출현한 이러한 알레고리적 주요 형상들은 서막에서 시작되어 극 중 대화에서 반복된 형상화와 교차하며, 표트르 대제에 대한 복합적이고도 완성된 이미지를 그려낸다. 한편 이 극의 서막에서 이미 지시되어 있듯, 이 극이 무대 위에 올려진 것은 이미 예카테리나 여제가 등극한 이후로서 이 극에 나타난 표트르 대제의 장엄한 이미지화는 그를 통해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받고 싶어했던 예카테리나 2세의 정치적 문화적 기획의 일환일 수 있다. 트레지야콥스키(В. К. Тредисковский)의 “표트르 대제의 죽음에 바친 애가(Элегия о смерти Петра Великого)”나 로모노소프(М. В. Ломоносов)의 “황제 위대한 표트르 대제에 대한 축복된 기억의 찬가(Слово похвальное блаженным памяти государю императору Петру Великому)”를 정확히 구도에 부합한다. 문학 텍스트들에서 그는 러시아와 페테르부르크를 수호하는 신적 형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숭앙된다.

반면 기록 문학의 장르이면서 구술 문학적 특성을 아울러 갖는 역사 일화들은 표트르 대제의 삶의 매우 구체적인 면들을 조망하고 있어 보다 인간적인 군주로서 그를 형상화하고 있다.

역사 일화(исторические анекдоты)는 1750년대를 전후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르로서 18세기 계몽시기를 맞이하여 매우 활발하게 간행되던 잡지와 문집들에 들어가던 기록 문학의 소장르이다. 이는 매우 실질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반드시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 사건을 체험하나 자의 회상록(мемуар)도 아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자신의 회고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화자들의 말을 빌어 사건을 전달하므로 구술 문학에 가깝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화자가 창작의 매순간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1인 작가에 의한 창작인 만큼 결코 구술 문학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 일화의 장르적 특성은 이를 개별적인 미적 원칙 하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한다.

역사 일화는 일화라는 장르명이 알려주듯 역사적 진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므로 하나의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며, 오히려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의 업적과 삶과 연관된 일화들이 일화의 주제적 원칙이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실제 이 시기 창작된 역사 일화들은 모두 여러 일화들의 묶음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화와는 달리 이 시기 창작되어진 역사 일화, 특히 표트르 대제에 관한 일화들은 흔히 알고 있듯, ‘윤리적 교훈과 각성을 주는 간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자의 삶 속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끌어내어진 다소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역사 일화는 진지하고 심각한 교훈적 이야기로부터 즐겁고 우스운 오락거리로서의 이야기로 전환된다.

결과적으로 여러 동시대 화자들의 의견과 더불어 제시되는 1인 작가의 창작물로서의 역사 일화는 대상이 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관점과 시대의식, 윤리의식을 드러내어준다. 즉 역사 일화 속에 나타나는 인물의 형상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인물이 아닌, 인물의 생전 혹은 사후에 나타나는 인물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시선, 나아가 18세기 사회 전반적 견해 속에 투영된 인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기록 문학으로서의 역사 일화 속에 드러난 군주의 형상을 통해, 그 어떤 문학 장르들이 드러내어 못한 보다 명확한 동시대인들의 평가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중 야콥 폰 슈텔린(Якоб фон Штетлин)의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의 유명인사들에게서 들은 표트르 대제의 실제 일화들 Подлинные анекдоты Петра Великого, слышанные от знатных особ в Москве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와 골리코프(И. И. Голиков)의 “믿을만한 근거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연도별로 배열된 러시아의 현명한 군주 표트르 대제의 행전(Деяния Петра Великого, мудраго преобразителя России, собранные из достоверных источников и расположены по годам)”이 가장 유명하며 오시프 벨라예프(Осип Беляев)의 “전 러시아의 황제인 표트르 대제와 그의 경쟁자인 스웨덴 황제 카를 12세의 정신(Дух Петра Вели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и соперника его Карла 12 короля шведского)”을 비롯하여 비교적 분량상 짧은 일화집들도 존재한다.<sup>35)</sup> 이러한 작품들은 다소 허구

35) Е. К. Никанорова *Исторический анекдот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18 в.* Новосибирск.

적일 수도 있으나 매우 현실적인 내용의 다양한 일화들을 통해 신격화된 군주가 아닌, 군대의 일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합리적일 뿐 아니라 관대하고 계몽적이며, 현명하고 공정한 군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처럼 기록 문학에서는 포트리 대제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조망하여 매우 친근하면서도 긍정적인 군주의 모습으로 그를 형상화해내고 있다.

#### 4. 구술 문학 장르에 나타난 포트리 대제의 형상

##### 1) 새로운 현실과 구술 문학

민중의 집단적 인식을 반영하는 구술 문학의 각 장르의 발생과 발전, 소멸, 그리고 그 장르 내적 미적 인식의 과정이 구체적 사회현실의 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혼란스러운 시대 환경은 구술 문학의 새로운 태동, 혹은 양적 질적 변화의 동기가 된다.<sup>36)</sup>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적 이상이 제시되고 정치, 경제, 신분 및 사회 체제에 대변혁이 일어난 포트리 시대는 구술문학의 다양한 변화를 위한 환경이 된다.

새로운 일상생활 양식으로의 강제적 전환과 같은 개혁 측면은 민중들에게 보다는 상류계층들에게 의미있는 것이었고, 실제 민중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 개혁의 현실적 측면은, 국가의 외형적 측면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개혁, 특히 도시, 군함, 공장 등 새로운 사회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포트리 대제의 개혁은 민중들에게는 극렬한 노동과 희생과 착취로 다가갔음이 분명하다. 동시에 새로운 사회구조화는 전통 사회에서 집단화되어있던 민중들 사이에서 군인, 상인 등 다양한 직업군과 계층을 분화시켰다.

전통적인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가운데서도 갈등은 야기되었다. 신식보병대의 설립으로 인한 전통 왕실 근위대(стрельцы)의 축소와 이로 인

36) 구술 문학과 현실 간의 다층적 관계에 대해서는 В. Я. Пропп “Фольклор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Фольклор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М., 1976 참조.

한 근위대의 반란(1697년), 신교, 로마지향의 종교적 정향성으로 인한 구교도들과의 대립, 강력한 국가권력의 강화로 인한 지방세력, 특히 돈 카자크인들의 저항(1707-1708년) 등 큼지막한 반란과 폭동 외에도 부역과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민중이 일으킨 작은 소요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sup>37)</sup>

관념이 아닌 실제 삶으로서 이 시대를 살며 시대의 변혁을 실행시키는 수단이 되어 강압적으로 변혁의 과정에 참여해야만했던 민중들은 그만큼 이 시대의 여러 사건에 대한 반응을 구술 문학을 통해 직접 남겼다. 특히 16세기 말, 17세기로부터 시작된 개인적 인식의 발전은 이 시대 구술 문학 속에서 종교적, 국가적 권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와짐으로 인해 점점 더 선명해져가는 민중의 시각을 남겼다.

이와 같은 정황은 이 시기에 역사적 사회현실에 대한 직접적 목격자로서의 구체적 진술이 특징이 되는 구술 문학의 두 장르, 역사 가요(исторические песни)와 역사 전설(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едания)이 무엇보다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sup>38)</sup>

역사전설은 구체적인 인물과 관련된 현실 사건에 관한 설화를 포함하여 민중들의 사회적 문화적 업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예술적 형상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실제 사건과 과거 현상에 뿌리를 둔 것인 만큼, 초기 러시아 구전문학 연구자들이 이를 역사적 연구 자료로 간주하기까지 하였다. 전설의 속성상 그것은 환상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설 속에 반영된 역사적 사건과 영웅은 문자화되지 않은 역사로서 민중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 있다. 프롭(V. Я. Пропп)의 관찰에 따르면 전설의 화자는 그것을 특별하게 장식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이 현실에서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한다. 즉 역사 전설의 화자는 목격자에 가까운 것이다.<sup>39)</sup>

반면 역사 가요는 실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결코 있는 그대로의 현실 역사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그 속에는 예술적 허구가 가

37) 제임스 크라크라프트 『표트르 대제』, 서울, 2008.

38) *Русское народное поэтическое творчество* Т.1, М.,Л., 1953, сс. 483-491.

39) В. Я. Пропп “Фольклор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Фольклор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М., 1976.

미되어 역사상의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이야기, 또는 민중이 현실로 있었다고 생각되는 바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역사 가요에서 명백한 현실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술적 허구를 포함한 현실의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민중화자가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혹은 그로부터 비롯된 상황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하며, 나아가 자신의 역사적 자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민중 화자 자신의 관점인 셈이다. 따라서 역사 전설에서는 화자가 서술하는 바를 실제 그 자체로 인식했다는 점을, 역사 가요 연구에서는 그 속에 드러난 역사적 과거와 현실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세계관과 입장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sup>40)</sup>

## 2) 구술 문학 속의 포트르 대제

16세기부터 보다 본격적인 구술 문학 장르로 등장하기 시작한 역사 가요는 순한 민란으로 점철된 17세기에 이르면서 구술 문학의 가장 주요한 장르가 되었다. 역사 가요의 이러한 위상은 18세기 포트르 1세의 시대와 연관하여서도 지속되었으며, 왕실근위병의 반란, 포트르의 북방 정벌과 같은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이 시대의 현실을 주도하는 군주로서의 포트르 대제는 민중들에게는 현실을 주도하는 권력이상의 의미, 심지어는 조국의 현실 그 자체였으므로, 구술 문학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포트르 대제의 형상은 당대의 역사적 현실을 살아낸 민중의 심리와 평가를 반영해준다 할 수 있다. 새로운 절대주의 국가권력의 전체성이 강화된 만큼 압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커져가는 동시에 현실에 대한 절망적 인식으로 가득차는 한편, 새로운 국가의 외형 건설에 동원되어 모든 개혁적 현실을 직접 자신의 노동으로 일궈냈던 민중은 그렇게 탄생한 국가에 대한 애정과 애국심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sup>41)</sup> 국가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이고도 모순적인 태도는 포트르 대제에 대한 이중적인 형상 - 압제자-

40) 같은 책.

41) *Русское народное поэтическое творчество* Т.1, М.:Л., 1953, с. 484.

적그리스도로서의 군주와 정의로운 군주라는 대립적인 - 으로 나타났다.

<왕실근위대(혹은 총병) 대장과 차르 포트르(Стрелецкий атаман и царь Петр)>는 이 시대 역사 가요의 대표적 사이클의 하나인, 총병 반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 가요의 대표적인 슈젤을 보여준다.<sup>42)</sup> 슈젤의 주인공은 텍스트의 처음과 끝을 차지하고 있는 총병이다. 중심적인 갈등은 총병과 차르 포트르 간에 형성된 대립인데, 간결한 대화를 통해 표현된 바, 총병에 대한 차르의 설명되지 않은 분노가 그 이유로 설정되어 있다. (“Ты за что, про что на нас, сударь, прогневался.(...)”) 총병의 푸른 정원을 베고 불태우고, 그 가지와 뿌리를 모두 말려버리는 것으로 표현된 황제의 분노와 분노에 의해 전멸 당할 수밖에 없는 정원의 수동적 형상은 총병들에 대한 황제의 분노의 부당함과 폭압성을 극적으로 형상화해내고 있다. 까닭없는 황제의 분노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총병은 자신들이 납과 화약도 없이 (“Без свинцу-томы, без пороху сударева”) 날카로운 칼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흰 가슴(“грудью белою”)만으로 차르가 원하는 도시를 가져다주겠노라는 서약하지만, 황제는 대귀족(бояре)과 원로원(сенаторы)과 장군들(фельдмаршалы)과 함께 생각해보겠노라고 답하며 무시한다. 새로운 개혁으로 생성된 새로운 직위와 명칭들, 신식의 전쟁도구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않은 구시대의 총병과 대립을 이루어 긴장을 더해가고, 그러한 서술들 속에서 총병의 맨 육체로서의 흰 가슴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더 날카롭게 만든다. 정결한 들판 위 좋은 말을 타고 은 갑옷과 담비털 모자를 쓰고 모스크바 향해 산과 골짜리를 넘고 숲과 강을 건너뛰어 향하는 총병의 형상<sup>43)</sup>은 민중의 영원한 영웅인 브일리나 속 보가뜨이리를 닮아 있는데, 이는 민중의 심리적 공감에 총병을 향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어준다.

42) *Русск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песня*, Л., 1987, сс. 186-187.

43) (“Водалече, водалече во чистом поле, (...)/ Выезжает-то удалый добрый молодец./ Еще тот же стрелецкий атаманушка. (...)/ Под ним добрый конь, ровно лютый зверь./ Кольчуга-то на молодце серебряная./ Соболина на нем шапка(...)/ Он и держит путь-дороженька у каменну Москву./ Он и горы и доли вперескочь скакал./ Темные леса между ног пускал./ Быстрые реки перепрыгивал.”)

표트르 1세 시기의 징병에 대한 민중적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 일단의 짧은 역사 가요 텍스트들도 찾아볼 수 있다.<sup>44)</sup> 멀리 보이는 배경 너머로 흔들리는 젊은이의 형상이 때로는 술에 취한 것으로 때로는 마치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묘사된다. 젊은이는 곧 군대에 끌려가야하는데 그는 결코 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황제의 의지로 인한 국가를 위한 복무로 일컬어진다. 텍스트는 황제와 젊은이의 형상은 대귀족과 민중, 국가와 개인간의 대립을 지속시키고, 텍스트에 따라서는 보다 더 극적인 상황 설정 - 예를 들어 눈물을 흘리며 국가 복무를 향해 비틀거리는 젊은이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다던가 하는 - 표트르의 개혁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표트르의 개혁을 통해 강성해진 러시아가 대외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정황들은 분명히 강력한 국가질서를 통해 안정을 누리하고자 열망해온 오랜 러시아인들의 마음 속에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우기도 한다. 역사 가요 중 일련의 텍스트들은 개혁가로서의 표트르 대제가 지니는 위대함에 주목하기도 한다. <스웨덴의 도시에서 표트르 1세를 알아보다(Петра 1 узнают в шведском городе)>의 슈젤은 표트르 대제가 개혁적 정책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서구 유럽을 방문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sup>45)</sup> 이야기 속 표트르 대제는 소수의 수행원들만을 이끌고 화려하게 장식한 배를 타고 스웨덴으로 향한다. 가는 도중 그는 모두에게 자신의 정체를 누설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지만, 스웨덴의 도시에서 초상화를 통해 그의 모습을 알아본 황녀에게 발각이 되어 갖힐 위기에 처하자, 피많은 표트르 대제는 그곳의 농부에게 많은 금을 주겠노라 설득하여 자신의 배로 되돌아와 도주를 한다. 평범하고도 짧은 모험 이야기와 같은 이 텍스트는 마지막의 반전 속에 있다. 표트르 대제를 잡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두 척의 스웨덴 배가 쫓아오고, 표트르는 혼신의 힘을 다해 도주하는데, 그 와중에 두 척의 배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를 쫓으려는 자들이 아닌 표트르에게 자신들을 함께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스웨덴인들의 목소리다. 즉 일화 속에서 상징되는 개혁적이고 선진적인 표트르 대제의

44) 짧은 텍스트인 만큼 제목을 가지지 않지만, 유사한 텍스트들의 다양한 변이형들이 발견된다. *Русск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песня*, Л., 1987, сс. 232-233 참조.

45) 원 텍스트는 위와 같은 책, сс. 205-206 참조.

국제적 위상에 대한 자긍심이 녹아든 일화이다.

앞선 텍스트들과는 다소 모순적이게도 표트르 1세를 민중에게 친화적 군주로 형상화하는 역사 가요의 텍스트도 나타나는데, <병사들이 돌고루키를 재판하다(Солдаты судят долгорукова)><sup>46)</sup> 나 <표트르 1세가 카자키들의 파멸을 슬퍼하다(Петр 1 скорбит о гибели казаков)><sup>47)</sup>의 슈젤이 그 예이다. <병사들이 돌고루키를 재판하다>에서는 병사들과 돌고루키 공후 간에 형성된 갈등 관계 속에서 표트르 1세가 병사들의 재판 방식을 인정하고 제한하는 것에 슈젤의 핵심이 놓여 있는데, 표트르 1세의 형상은 민중에게 매우 친근하고도 선량한 군주로 나타난다. <표트르 1세가 카자키들의 파멸을 슬퍼하다>에서는 아침예배에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카자키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표트르 1세와 밝은 옷을 입고 수군거리는 공후-대귀족들의 모습이 대립적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전투에서 잃어버린 군대를 애도하는 표트르가 공후-대귀족들에게 내뿜는 분노한 말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 표트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세 부대를 잃어버린 것을 언급하며 부대를 이끈 장수를 배신자라 칭한다. 이때 그는 다른 두 정식 부대보다도 돈의 카자크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무사들을 잃어버린 것이 더욱 더 슬프다고 언급한다(“Потерял он три полка любимые:/ Первый полк потерял Измайловской,/ Второй полк потерял Ермолаевской,/ Третий полк потерял донских казаков./ Не жаль мне столь двух полков,. Как жель донских казаков, славных воинов”) 표트르 1세에 의해 돈 카자크인들의 반란이 진압된 실제 역사적 정황과는 다른 이 역사 가요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름아닌, 대귀족 공후, 장수와 표트르, 돈 카자크 인물 간에 형성된 대립구도이다. 다시 말해 대귀족-공후들에 대해 형성되어 있던 민중들의 분노와 대립이 역사적 실제와는 달리 폭압성을 대귀족-공후들에게로 돌려 표트르를 선량한 군주로 형상화한 것이다.

한편, 민중 구술 텍스트에 반영된 정의로운 군주의 형상은 기록 문학 텍스트에서와 같은 추상적이고 숭고한 절대 군주의 그것이 아니며, 일반 민중들과 친근한, 지상으로 내려온 군주, 민중들과 평등한 군주의 모습을 띄고 있다.

46) 같은 책, cc. 207-208.

47) 같은 책, c. 192.

특히 환상적 요소가 가미된 역사 전설 텍스트에서는 이렇듯 이상적 군주의 모습이 더욱 더 강조되어 있다.

도시를 건설하여 공장과 교회를 세운 군주로서 표트르 1세가 행한 업적들을 민중의 일상 노동과 동일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텍스트에서는 표트르 1세의 업적을 배끄는 인부의 노동과 비교하는가 하면<sup>48)</sup>(“Вот он царь так царь, даром хлеба не ел; лучше барлака работал”)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있었다던가, 일반 대중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자문을 구하는 기술자나 장군의 형상으로 묘사된 것이 그것이다. 대장장이의 기술을 두고 대화를 나누며 정당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한다던가(№25-27)<sup>49)</sup>, 일반 러시아인들은 간단히 손쉽게 삼은 랫치를 절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다던가(№ 37), 민중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31), 민중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24,41) 보드카를 댓가로 일을 서두르고(№ 34), 새로운 군인을 뽑는 과정에서 힘센 표트르 1세가 민중 청년을 마구 던지기도 하지만, 그러다 던져지기도 하고(№ 44), 아이에게 세례를 내려주기도 한다(№ 42). 때로 역사 전설에는 이반 뇌제의 경우와도 같이 자연에 대해 서마저도 강력한 군주의 권력을 행사하는 초자연적 권력자로서 형상화되는 경우도 있지만<sup>50)</sup>, 역사 전설 대부분의 텍스트 속에 반영된 표트르 대제의 형상은 민중의 눈높이로 내려와 있다. 그러나 친근한 군주로서의 표트르 대제의 형상을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대포 주조법, 선박 건조법을 배워 항만과 공장에서 일을 한 다음, 러시아로 돌아와 러시아 장인들의 수공업을 대체시키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작나무껍질로 삼은 전통 짚신(랫치; лапти)을 삼을 줄 모른다. 거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기술자(мастер)로서의 표트르가 정작 민중들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상 실용기술의 하나인 짚신조차 삼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 부조리한 상황이다. 역사 전설들에 나타나는 민중화된 표트르 1세의 형상에는 국가적 정책과 위

48) *Русский фольклор*, М., 1998, с. 164.

49) 이하 번호는 *Петр I. Предания, легенды, сказки и анекдоты*. М., 1993. 에 기록된 텍스트 순번임.

50) *Русский фольклор*, М., 1998, с. 164.

업보다도 자신들의 삶의 현실에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한 민중들의 주체의식이 자리하고 있으며, 친근한 군주의 형상은 민중과 러시아 현실을 대변혁의 회오리 속에 몰아넣은 표트르 대제의 강력한 정책에 대한 조용한 조롱이자 민중적 골계미일 수 있다.<sup>51)</sup>

이렇듯 구술 문학 속에 드러난 표트르 대제의 형상에 찬사와 비난, 칭송과 조롱의 어조가 한 텍스트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 사례들이 시사해주듯, 표트르 대제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은 매우 모순적이며 복잡적이다.

흥미로운 것은 표트르 1세와 연관된 구술 문학들 속에서 부정적인 형상보다는 긍정적인 형상이 훨씬 더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민중의 직접 체험한 역사적 현실에 대한 고통이 구술 문학 속에 동시대적으로 반영되었으나, 그러한 고통에의 기억이 희석되고 그 과정에서 국가적 이미지와 연관되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군주로서의 표트르 대제의 형상이 서서히 부정적인 형상을 잠식해간 영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sup>52)</sup>

## 5. 결론

18세기 러시아의 기록 문학은 구러시아의 종교-문학적 관례로부터 탈피하였으나 새로운 작동 기제로서 종교 대신 정치성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절대 군주의 형상은 모두 매우 긍정적이며 이상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 미적 체계를 계승한 구술 문학 속에서는 전제 군주에 대한 다양한 시선이 반영되었는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왕권의 의미가 지상으로 내려오고 민중의

51) 표트르 대제에 대한 민중적 해학의 질정은 루복 판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미 학자들에 의해 밝혀져 있던 18세기 러시아 루복에서 매우 인기있는 주제였던 고양이인 유럽식 ‘고양이 수업’을 한 표트르 대제에 대한 조롱이었다.(Д. Ровинский *Русские народные картинки* СПб., 2002, с.139; Пьер-Луи Дюшартр *Русские народные картинки и гравированные книжицы*, М., 2006, сс. 166-170) 당시 루복에서 매우 인기있었던 <쥐가 고양이를 장례지내다>의 슈젤은 권력에 대한 민중적인 해학적 세계전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52) К. В. Чистов *Русская народная утопия*, СПб., 2003, сс. 121-124.

개인성에 대한 의식이 고취된 이 시대에는 군주를 바라보는 민중적 시선이 매우 적극적이며 자기표현적일 뿐만 아니라 솔직하여 다양하다는 점이다. 구술 문학에 트러난 표트르 대제의 이러한 문화적 기억의 양상들은 표트르 대제의 대개혁기를 살아낸 러시아 민중들의 역사에 대한 평가 및 그들의 실제적 고충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드러내어준다.

특히 표트르 대제는 부정적 형상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 검열을 가동하였다. 그는 기록 문학 텍스트의 산실인 수도원과 수도사들에 대한 검열의 칙령을 내렸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산하는 루복화를 금지하기도 하였다.<sup>53)</sup> 문화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검열이 이렇듯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구술 문학에는 때로 조용하게, 때로는 매우 적극적으로 표트르 대제 시기 현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표출되어졌다. 표트르 대제에 대한 민중의 인식이 더욱 더 이중적 모순적이면서도 교묘한 것은 민중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제국의 직접적인 억압과 검열에 민중이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일 수 있다.

기록 문학과 구술 문학에 나타난 표트르 대제의 형상에 대한 검토는 민중적 이데올로기와 공식적 문화 작동 기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단적으로 드러내어주며, 공식적 역사에 대한 객관적 기록 외에, 또다른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서 문화적 기억이 갖는 의의를 보여준다.

아울러 국가의 행위와 역사적 현실에 대해 민중의 기억이 수동적으로 반응하거나, 절대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반복으로만 치달지 않으며, 역사적 현실의 또다른 주체로서의 민중의 위상을 상기하게 해준다.

53) *Русское народное поэтическое творчество*, Т.1, М.:Л., 1953, с. 487.

## ❖ 참고 문헌

- 제임스 크라크라프트. 『포트르 대제』, 서울, 2008.
- 로버트 마시. 『러시아의 위대한 개혁자, 피터 대제』, 서울, 2001.
- 윌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 로트만. 『기호계』, 「문화의 기호학적 메카니즘에 대하여」, 서울, 2008
- Адоньева, Светлана. *Прагматика фольклора*. СПб., 2004.
- Адрианова-Перетц, В. П.(ред.). *Народно-поэтическая сатира*, Л, 1960.
- Анисимов, Е. Время петровских реформ. Л., 1989.
- Бердников, Л. и Серебряный, Ю. *Пантеон росси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18 века*. СПб., 2002.
- Буранок, О. М.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8 века. Петровская эпоха. Феофан Прокопович*, М., 2003.
- Дюшартр, Пьер-Луи. *Русские народные картинки и гравированные книжицы*, М., 1996.
- Зуева, Т. В. и Б. П. Кирдан. *Русский фольклор*, М., 2001.
- Из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Т.4. М., 2004.
-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4-х томах*. Т.1. М.;Л., 1981.
- Исторические песни*, М., 2001.
- Кравцов Н. И. и Лазутин С. Г. *Русское устное наро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М., 1977.
- Криничная, Н. А. *Русская народн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проза*, Л., 1987.
- Левшун, Л. В. *История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ого книжного слова 11-17вв*. Минск, 2001.
- Лихачёв, Д. С.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0-17вв.*,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в 3-х томах, Т.1, Л., 1987.
- \_\_\_\_\_, *Поэтика древне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в 3-х томах, Т.1. Л., 1987.
- Лотман, Ю. М. & Б. А. Успенский. “О семиотическом механизме культуры,” *Семиотфера*, СПб., 2001.
- \_\_\_\_\_, “Отзвуки концепции «Москва - Третий Рим» в идеологии Петра Первого( К проблеме средневековой традиции в культуре барокко),”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Т.3, Таллинн, 1993.
- Лотман, Ю. М. “Память культуры,” *Семиотфера*, СПб., 2001.

- \_\_\_\_\_, “Поэтика бытового поведения в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18 века,”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Т.1, Таллинн, 1993.
- Народная словесность*, М., 2002.
- Никанорова Е. К. *Исторический анекдот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18 в.*  
Новосибирск, 2001.
- Николаев, С. И. *Литературная культура петровской эпохи*, СПб., 1996.
- Панченко, А. М. “О смене писательского типа в Петровскую эпоху,”  
*Проблемы литера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и первой трети*  
*18в.(18в. Сб.9)* Л., 1974.
- \_\_\_\_\_, *Русская культура в канун петровских реформ*. М., 1984.
- Петр 1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18 в.*, СПб., 2006.
- Петр 1. Предания, легенды, сказки и анекдоты*. М., 1993.
- Петр Великий: pro et contra*, СПб., 2003.
- Пропп, В. Я. ‘Фольклор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Фольклор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М., 1976.
- \_\_\_\_\_, ‘Жанровый состав рус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Фольклор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М., 1976.
- Прозаические жанры рус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сост. В. Н. Морохин, М., 1977.
- Пьесы школьных театров Москвы*. М., 1974.
- Ровинский, Д. *Русские народные картинки*, СПб., 2001.
- Русск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песня*, Л., 1987.
- Русский фольклор*, М.;Л., 1936.
- Русский фольклор*, М., 1998.
- Русское народное поэтическое творчество* Т.1, М.;Л., 1953.
- Соколов, Ю. М. *Русский фольклор*, Л., 1941.
- Стенник, Ю. В. *Идея «древней» и «новой» России в литературе и*  
*общественно- исторической мысли 18-начала 19века*, СПб., 2004.
- Чистов, К. В. *Русская народная утопия*. СПб.: "Дмитрий Буланин", 2003.
- Черная, Л. А. *Русская культура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 от средневековья к*  
*новому времени*, М., 1999.
- Феофан Прокопович. *Сочинения*(Под ред. И.П.Еремина), М.;Л., 1961.

## ❖ ABSTRACT

## Historical Reality and Cultural Memory: The Image of Peter I in Russian Literature and Folklore

Seo, Seon Jeong

In the world history in the rein of totalitarianism cultural project of government had been activated, and consequently of it official culture had been organized. But at the same time on the other side of it people(‘narod’), who didn’t have cultural means for active expression of own opinion on the reality, had expressed world-view and judgement informally in everyday language. In the literature of autocracy, subjected to censorship, had been expressed and fixed mythically idealized image of sovereign and his works. But in the folklore the image of ruler had been created by liberal fantasy of people.

This article examined russian literature and folklore texts of 18 century, when russian people suffered from rapid and dramatic changes, caused by Peter I. Although russian literature of 18 century had gone over to the new literary regime, it still accepted political mechanism as dominant of age, and consequently in the literary texts of this century Peter I was represented as ideal person and great monarch. But various images in folklore texts show that people’s opinion on ruler and his activities couldn’t be controlled. In other words, diverse images of Peter I in folklore texts reflect clear and plain historical consciousness of people.

This analysis reveals not only difference between mechanism of idealization of government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of people, but also meaning of cultural memory as indicator of historical reality.

---

### Key Words

표트르 1세, 역사적 현실, 문화적 기억, 러시아 구전 문학, 러시아 문학, 18세기 Peter I, historical reality, cultural memory, russian folklore, russian literature, XVIII century

논문접수일: 2012. 11. 10.

심사완료일: 2012. 12. 07.

게재확정일: 2012. 12. 21.